

2005년 우즈베키스탄 국민방문-고려인 동포 초청 만찬

- 인사말 -

통일을 모두 소망하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. 천천히 할수록 무리한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이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.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할 일은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.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등이 잘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성공단에 제일 큰 기대를 걸고 있다.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, 이것이 잘 되려면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잘 풀려야 한다. 북핵 문제가 잘 풀려서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확 트이기를 바란다.

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한다.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받는 기회도 더 넓어져야 하고,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열릴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손질하도록 하겠다. 올해부터는 동포들에게 산업연수생을 1,000명 할당해서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. 그리고 비자가 까다로워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. 보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제한들이 너무 까다롭지 않게 되도록 조치하겠다. 여러분들이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포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. 열심히 하겠다.